

영에 투자하면

작성일 : 2010. 2. 11. (목) 저녁 9:30

작성자 : 정명심 목사 (대구스타교회)

2010년 2월 11일 새벽

[진리천국성령운동 때 ‘영, 혼, 육의 시스템과 휴거의 비밀’에 대한 최첨단의 진리의 말씀을 듣고, 너무 쇼크를 받아 감사의 기도를 드리며 영에 대하여 더 알고 싶다고 간구 드렸을 때 주님께서 주신 말씀입니다.]

너는 적을지어다.

영은 나와 내 아버지, 어머니가 만든
천륜의 가장 귀하고 귀한 최고의 비밀,
최대의 노력과 투자로 야심차게 만든 창조물이니라.

영으로 나와 통하게 만들어 영이 아니고는
절대 나와 내 아버지, 어머니와 통할 수 없는
절대적인 시스템으로 만들었노라.

너의 영은 나와 닮았고,
영이 나와 만나지 않으면
인생 100년, 1000년을 살아도
허무하고 곤고케 창조하였다.
삶을 포기하는 자, 삶에 만족이 없는 자.
나와 영으로 만나지 못한 괴로움이다.

영에 눈을 떠라!
영에 투자하라!
영원한 나의 사랑을 영으로 만나라!
영이다! 영이다!
영밖에 없다.

영이 아니고는,
평생 육의 무가치성에 곤고를 느낄 것이다.
나의 사랑아, 너는 영이 있노라.
영외에는 무가치하다.
육은 영을 싸고 있는 보호막이요,
결국 난데로 돌아갈 한줌 흙에 불과하다.
영에 투자하라!

영의 가치성에 눈을 떠라!
육은 무익하나,
영을 위해 쓰는 육이라야 유익하다.
영은, 나에게 올 수 있는 유일한 통로, 유일한 방법,

유일한 비밀이다.
영의 길로 나에게 걸어오라.

(영에 투자한다는 말은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면 되는 것인가요? 라고 여쭙습니다.)

영의 양식을 먹이라.
영의 젖을 먹여라.
말씀이다!
말씀을 먹어 영양이 혼과 영으로 가게 하라.

말씀 먹지 않은 영! 털 자라 인큐베이터 안에 있는 영.
말씀 먹다 만 영!
어미 자궁에서 머리만 나오다 지체에 걸려 버린 영.
말씀 편식치 않고 감사히 맛있게
먹는 영!
제 때 제 시간 순산하여 건강한 영이다.
미래에도 건강하게 무럭무럭 자라
제 구실 제 역할 할 자이다.

오로지 나와 하나님의 말씀에 시간 투자하여
말씀 듣고, 되새기고, 명심하여 행실로 이어지게 하라.
그 행실의 대가 그대로 하늘나라
가는 길 예비케 한다.
첩경을 예비케 한다.
하늘나라 갈 수 있도록 하늘나라
영체로 만든다.
과정이다. 절대 도중에 포기치 마라.
나비가 애벌레에서 거뿔나기 전
세상으로 나오기 위한
몸부림의 고통이다.

병아리가 부화되기 전
세상으로 나오기 위한 몸부림의 통증이다.
유익한 통증이다.
여기서 세상은 천국을 비유한 것이다.

(예수님~영적으로 투자하는 것에 말씀을 듣는 것 외에 또 무엇이 있나요?)

나와 내 아버지가 원하는 것,
좋아하는 것,
바라는 것,

해췌으면 하는 것을 하는
모든 의로운 행실과 행위는
모두 영에 투자하는 것이다.
너의 영이 깨끗하고 청결하길 원하노라.

(예수님~그럼 영이 변화되었다는
것을 어떻게 알 수 있나요? 어떤 표가 나지요?)

영이 거듭나면, 너는 정신이 빛나
무슨 일을 하든 지
나의 뜻, 의향, 내가 원하는 방향으로
생각하고, 행실하고,
마치 하늘나라 사람처럼 행동한다.
지상에 살지만 천인의 행실과 사상으로 산다.

더 이상 세상, 육적인 일, 형이하학적인 삶을 살지 않는다.
영적인 사상! 나의 사상인고로
너는 나의 음성을 낼 것이요,
나의 눈으로 생명을 볼 것이요,
나의 귀가 되어 절대 악평에 휘말리지 않고
좌우로 치우치지 않을 것이다.
영적인 사람, 신령한 사람, 천인이 되어라!

마지막으로 말하노라.
썩어 없어질 것에 투자하지 말고,
영원히 썩지 않을 영원한 것에 투자하여라.
내가 영에 심혈을 기울였노라.
영으로 나와 통하자.

천국 영체로 온전히 변화하여
나의 마지막 재림의 날,
웃음으로 맞자.
온전하라.
준비하라.
예비하라.
목숨 걸고 영을 위해 살아라!
사랑한다.
나는 너를 사랑하는 만왕의 왕 예수 그리스도니라.

(마지막으로 예수님 떠나시면 어떻게 될 까 머리로 생각하는 가운데, 주님께서 주신 감동입니다.)

내 영이 떠나갈지라도,
너가 내 영을 받고 온전히 거듭난다면,
나는 떠나도 떠난 것이 아니요,
내가 되어 사는 너가 살아있으니,
결코 떠난 것이 아니니라.
어린아이같이 염려도 걱정도 할 것 없다.
나는 예나 지금이나 너와 함께 하노라.